

멋진 준우승 ... “그대들 있어 행복했다”



16일 새벽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팀 선수들이 목에 메달을 걸고 경기장에 응원 온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U-20 월드컵 우크라이나에 1-3 아쉬운 역전패
이강인 2골·4도움 맹활약 ‘골든볼’ 수상
내년 도쿄 올림픽·2022 카타르 월드컵 활약 기대

관련기사 2·4·7·14·20면

“그대들이 있어 덕분에 꿈을 꿔고 행복했다.”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FIFA 주관대회 우승을 노렸던 U-20 월드컵 대표팀이 아쉽게도 전연미달의 준우승을 일궈냈다.

한국 U-20 대표팀은 16일 새벽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대회 결승전에서 전반 4분 만에 이강인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나갔지만 블라디슬라프 수프리아하에게 잇따라 동점골과 결승골을 허용하고 후반 44분에는 헤오르히 치타이쉬빌리에게 쐐기골을 내주며 1-3으로 역전패했다.

태극전사들은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 새 역사를 썼다.

태극전사들은 경기 초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체력 저하로 수세에 몰렸다. 한국은 키오프 2분 만에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김세윤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비수 다닐로 베스코바야니의 발에 걸려 넘어졌

다. 비디오판독(VAR) 심판과 교신한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한국은 전반 5분 이강인이 페널티킥 킥으로 나서 왼발슛으로 선제골을 쏘았다. 이강인의 이번 대회 6번째(2골 4도움) 공격포인트였다.

리드를 빼앗긴 우크라이나는 좌우 윙백을 앞세워 맹세게 공격했다. 전반 34분 공격수 수프리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넣으며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정정용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김세윤 대신 스피드가 좋은 원원상(광주FC)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후반 8분 수프리아하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골키퍼와 독대하며 오른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총공세에 나선 한국은 이강인이 잇따라 크로스를 올리며 헤더골을 노렸지만 우크라이나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후반 24분 이강인의 왼쪽 코너킥을 수비수 이재익이 헤더를 했지만 골키퍼 안드리 루닌의 손에 맞고 크로스를 배회하면서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놓쳤다. 이후 후반 44분 또다시

역습을 당해 추가골을 내줬다.

비록 경기에서는 졌지만 이강인은 한국 남자 최초로 대회 MVP에게 수여하는 골든볼을 수상했다.

이강인은 골든볼을 수상하면서 2003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든볼을 수상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이스마일 마타리 이어 16년 만에 아시아 수상자가 됐다. 4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은 FIFA 주관 단일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서는 최다도움 기록도 남겼다.

젊은 태극 전사들의 활약 덕분에 벌써부터 2020 도쿄 올림픽과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도쿄 올림픽 대표팀(23세 이하)은 지난해 속적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건 이승우·김민재·나상호 등이 주축인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멤버들과 이강인 등 이번 U-20 월드컵 준우승을 한 ‘황금세대’와의 결합을 꿈꾸고 있다.

2001년생 이강인 등을 비롯해 이번 U-20 주축선수들은 내년이면 만 19-21세로 올림픽 해당 연령보다 3-4살이나 어리다. 하지만 큰 대회 경험을 쌓은 이들이라면 2020 도쿄 올림픽은 무리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골든보이’ 이강인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이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비 부족하다” 차량 성능시험장 포기

광주시, 3천억 규모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기반시설’ 축소

자동차전용 국가산업단지인 광주빛그린산단에 건립될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기반시설’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기술지원동, 부품차량 성능 시험장 등 건물 3동으로 계획됐는데, 광주시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부품차량 성능 시험장 건립을 아예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6~2021년까지 빛그린산단 내 3만2989㎡(1만평) 부지를 사들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부품 개발 및 부품 업체 기술 지원을 골자로 한 3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지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이자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광주그린카진흥원으로부터 기반시설 건축규모를 축소·조정하는 계획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진흥원이 설계업체에 용역을 맡긴 결과 기반시설 건립에 드는 비용이 당초 사업비 329억원보다 211억원 늘어난 540억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공사에 쓰일 자재를 바꾸고 공정을 최소화해도 공사 비용은 427억원으로, 기존 사업비에서 1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진흥원은 그러면서 기반시설 건축규모 조정안을 광주시에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지하 1층·지상 6층으로 계획된 것을 1개층 줄이기로 했다. 연면적도 기존 7960㎡이던 것을 2977㎡를 줄여 4983㎡로 조정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빛그린산단에 입주할 자동차 부품업체를 돕기 위한 업무 지원 건물이자 각종 교육훈련·전시공간으로도 활용

된다. 기술지원동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라는 애초 계획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다.

기술지원동과 함께 ‘선도기술지원센터’를 구성하는 부품차량 성능시험장은 짓지 않기로 했다. 성능시험장 건립 제외 방안이 대해 진흥원과 광주시 내부에서는 적잖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원의 사업비 부족으로 핵심 기능인 성능시험장 건립을 제한한다는 게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당초 광주시와 진흥원은 성능시험장을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3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광주시가 동의하면서 성능시험장을 뺀 나머지 기반시설만 짓는 방안이 최근 확정됐다.

광주시는 이런 결정 배경에 대해 “광주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사업추진 초기이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기준단가를 적용했고, 그간 물가가 올라 공사비도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사비 부담으로 못지 않게 성능시험장의 기능은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행명에도 성능시험장이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성능시험장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 운영할 친환경자동차 인증센터가 운영 주체가 확연히 다른데다, 업무도 개발 부품 테스트와 차량 및 부품 인증으로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해 함께 사용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알고 보자 - 수구 ▶5면

어설픈 경찰 대응 불안한 시민들 ▶6면

문화관광을 키우자 - 경기도 안양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교육과정 교육생 & ONE-STOP창업지원 컨설팅 대상자 공모

2019년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교육과정』 교육생 & 『친환경양식 ONE-STOP창업지원』 컨설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6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교육과정 교육생

1. 교육과정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교육

2. 모집인원 총 100명 이내

3. 신청자격
○ 수해양계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수산업종사자 또는 경영자
○ 양식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4.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모기간 : 2019. 6. 3 ~ 6. 30
○ 접수기간 : 2019. 6. 17 ~ 6. 30
○ 신청서 교부/접수 : 경남/전남여촌특화지원센터
- 경남센터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201호
· E-mail : ldh031@fipa.or.kr
- 전남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 E-mail : jhwon2002kr@naver.com

5.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6. 교육생 선발

○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별 통지(교육대상자 문자 발송)
※ 신청자가 100명 이내일때는 선정위원회 생략할 수 있음

7. 교육과정 및 일정

○ 교육과정 : 이론교육, 현장실습, 현장학습
○ 교육기간 : 이론교육 - 1주/5일(토,일요일 제외)
현장실습 - 4주/20일(토,일요일 제외)
○ 교육일정 : 8월 5일~ 9월 6일(예정)
○ 교육품종 및 장소
· 횡다리새우 : 서해수산연구소(태안센터)
· 군장거미새우 : 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
· 납치,김,전복,해삼 : 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
· 관상어,미꾸라지 : 선진양식장 등
※ 품종에 따라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방법 : 합숙교육

○ 교육주관 : 한국어촌어항공단(경남/전남여촌특화지원센터)

8. 교육비 국비지원 ※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음

9.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대상자

1. 모집인원 100명 이내

2. 컨설팅 분야 4개 분야

○ 양식창업,경영
○ 행정서비스(인,허가사항)
○ 양식생산기술
○ 수산물유통(마케팅)
※ 개인 별 최대 4회 신청 가능/중복신청 금지

3. 신청자격

○ 양식창업자 및 예비양식창업자
○ 친환경기술이전 교육 등을 수료하고 양식창업을 준비중이거나 희망하는 자 등

4.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9. 6. 1 ~ 10. 30
○ 신청서 교부 : 경남/전남 여촌특화지원센터
○ 신청서 접수 : 경남/전남여촌특화지원센터
- 경남센터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201호
· E-mail : ldh031@fipa.or.kr
- 전남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 E-mail : jhwon2002kr@naver.com

5.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6. 대상자 선발 2019. 7. 1 ~ 10. 30 수시(개별통지)

7. 컨설팅 품종 10대 전라품종(해양수산부 지정)

※ 품종 : 새우, 민물장어, 관상어, 전복, 해조류, 능성어, 해삼, 납치, 갯벌참굴, 참다랑어

8. 컨설팅 지원 방법 및 장소/일정

○ 지원방법
· 신청자가 분야별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1:1 맞춤형 컨설팅지원
· 1인 최대 4개 분야(4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금지
○ 컨설팅 일정/장소 :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컨설팅 기간 : 2019. 7. 1. ~ 11. 30.
○ 주 관 기 관 : 경남/전남여촌특화지원센터

9. 컨설팅 비용 국비지원 ※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음

10. 기 타 컨설턴트 리스트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